

북한의 산유국 꿈, 가능할 것인가

권경복 / 내외통신 기자

북
국

한국의 산유국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근 일각에서는 북한의 원유 매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몇가지 조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말 북한의 정무원 원유공업부(부장 박원현)는 미국과 일본의 자문 회사를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에 2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東京에서 '조선유전개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시추 지역과 결과 등 유전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철저히 보안에 붙여왔던 태도에 비추어볼 때 파격적인 일로 평가된다.

10월의 개발설명회에서는 호주의 '페트렉스'社(PETREX Co. Ltd.)의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북한의 유전 분포와 관련해 10여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원유공업부는 올 3월에 호주, 9월에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각각 유전개발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구 시추

및 개발 입찰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개발설명회와 관련, 주목되는 대목은 臺灣의 「工商時報」가 북한의 원유 매장 여부는 북한측 발표외에 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한 점이다.

그같은 사실은 원유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북한 수역의 매장 가능성이 해외 관계자들의 분석을 통해 검증됐을 수도 있다는 견해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해, 북한의 산유국 꿈이 그냥 '꿈'만이 아니라 현실로 재현될 수도 있음을 회미하게나마 암시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원유의 매장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말 재일 조총령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일 비서가 지도하는 공화국: 잠재력을 탐구한다" 제하의 일본어판 기사에서 관련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원유 매장지가 서해안의 경우 육지에서 1.2 km 떨어진 수심 70 m의 지점이며, 매장량은 60억 톤(원유 단위 환산에서 1 톤은 약 7.33 배럴에 해당) 정도로 추산되고 있

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참고로 이라크나 이란의 매장량이 약 100억 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양은 적지 않으며, 다만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유전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과 고도의 기술 지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초에는 북한이 「북한 유전에 관한 일반 정보」, 「동해 광량」, 「서해 광량」 등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세 종류의 보고서와 탄성과 조사도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채굴 사업 참가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일본 東京의 북한 서적 전문 회사인 레인보우통상(대표 미야가와 준)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해에 7 개, 동해에 2 개의 시추공을 뚫어 시추한 결과 油徵이 발견되었고, 총 매장량은 588억 2,400만~735억 3,000만 배럴로 추정되며 유전의 위치는 서해안의 경우 남포 앞쪽 중국 경제 수역 부근, 동해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앞쪽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9.13~15)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투자설명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金正宇(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겸임)는 “서해안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산유국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김정우는 북한이 그동안 외국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년간 시추 작업을 벌여왔으며, 최근 대규모 유전을 발견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과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전의 발견 시기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정우의 발언은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북한 고위 관리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발언의 개연성을 부여하기라도 하듯 서해안 유전 개발의 기초 조사를 담당할 일본의 닛쇼이와이(日商岩井)상사와 일본석유공단측도 10월경 일부 언론에 황해도 앞바다 16 개 해역에서 해저 유전 구조물을 다수 발견했고, 매장량 추정치를 종합해보면 최대 100억 배럴에 이른다고 슬쩍 흘렸다.

북한의 유전 탐사 작업을 벌여온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지난 1964년 구소련의 기술 지원을 얻어 유전 탐사를 시작한 이래,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내륙과 동해·서해에서 수차례의 탐사를 실시한 결과 서해안 일부 시추공에서 油徵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경제성 측면에서는 의문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70년대에는 주로 유럽의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안남도 안주, 함경북도 명천, 아오지 등 내륙을 중심으로 시추 작업

을 벌이고, 1979년부터는 싱가포르에서 원유 시추선을 도입, 서해안 대륙붕에 대한 시추 작업도 전개했으나 이것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서해 남포 앞바다에서 油徴을 발견, 호주의 '메리디언'社와 900만 달러의 粗鑛 계약을 체결하고 시추 작업을 벌였으나, 하루에 425 배럴의 원유를 뽑아내는 데 불과(경제성에 부합하려면 하루 1,000 배럴 이상의 원유가 나와야 함)해 1989년에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92년 7월 당시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金達玄은 일본경제교류대표단(단장 동아무역연구회 회장 이지마 도시오)의 북한 방문시 "우리나라(북한)의 동해안에 있는 원유 자원에 대해서 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도 1992년 10월 방북 중인 외국 언론인과의 면담에서 "동해와 서해에 원유가 있다는 것이 탐사 작업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1992년에는 이외에도 프랑스의 '토탈'社 등 서방측의 6 개 석유 회사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해 유전개발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이듬해인 1993년 2월에는 스웨덴의 '타우라스'社와 계약을 체결해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유전 개발에 관한 북한의 이같은 적극적인 태도는 지도부의 승인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생전의 김일성은 이 문제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김일성이 1993년 12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전원회의에서 원유 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관련 부문 경제 관료들을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자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배합했다는 점에 있다. 당시의 연설 내용을 인용해보자.

"우리 일꾼들이 지력강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원유 탐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였더라면 오래 전에 원유를 생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꾼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 원유를 탐사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만 오늘까지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유 탐사를 자체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원유를 탐사하려면 물리 탐사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원유 공업 부문 책임일꾼협의회를 열고 원유 탐사 사업을 료해해보니 물리 탐사선을 만들고 있는 데 弱電 설비가 걸려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전 설비를 사오는 데 필요한 외화가 걸렸으면 나에게 보고라도 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외화를 주라고 하였으니 약전 설비

를 사다가 물리 탐사선을 빨리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말뿐만 아니라 그치지 않고 1994년부터 정무원 산하에 유전 개발과 원유 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원유공업부를 신설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날로 심각한 상태로 치달던 유류난 타개와 독자적인 원유 확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7차회의(1994. 4.6~8)에서 완충기(1994~96)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을 통해 “원유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탐사 설비와 장비를 강화하며, 유망한 지구들에 대한 탐사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원유 매장지를 찾아내도록 할 것”을 관련 경제 책임자들에게 당부했다.

당시의 결정은 북한 스스로 원유 탐사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첫번째 사례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유 매장지 탐사 작업에서 이미 한 두 차례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1994년경부터 호주의 ‘비치 피트볼리엄’社가 북한에 들어가 동해안 3만 km² 지역에 대한 정밀 탐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질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1995년에 중간 결과를 밝혀 북한 당국의 기대감을 부풀리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유전 개발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기구인 정무원 원유공업부외에 현재 동해안의 유전 개발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조선경제개발총회사(총사장 林泰德)를 두고 있다. 이 기구는 지난 1994년 IBM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유전 개발을 포함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1993년에 남포와 원산 앞바다의 해저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 삼성그룹 등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도 직간접적을 요청, 북한이 유전 개발 사업에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이처럼 유전 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선 만성적인 에너지난이 북한의 경제난을 한층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공장·기업소라고 자랑하는 함북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나진·선봉지대의 승리화학공장, 평남 안주의 남흥청년화학공장, 함남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의 가동률이 90년대 들어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것이 각종 자재의 부족 등으로 이어져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외에 지방 산업 공장들의

생산 중단 사태가 빈발해짐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생필품의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난은 또 화물용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목탄차로 개조되는 현상을 빚거나 트랙터를 비롯한 영농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영농 일정의 차질을 초래, 심각한 식량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이의 대체 수단으로 메탄 가스를 자체적으로 제조, 영농 기계의 원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양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1991년 189만 톤이던 것이 1996년에는 94만 톤 정도에 불과했다. 여기에 도입선도 중국, 러시아, 이란, 리비아 등으로 다변화되었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중국으로만 제한됨으로써,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에 따라 지원되는 중유를 빼면, 향후 원유 수급 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한 편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체적인 유전 개발뿐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이 북한이 그토록 유전 개발에 집착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셈이다.

원유의 매장 여부와 경제성이 반드시 먼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제 원유 개발 시

도에 관한 주사위는 얼마전 당 총비서직에 공식 추대되어 명실상부하게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김정일에게 던져졌다. 현재로서는 김정일 역시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생전에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유전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외신이 북한이 1998년부터 대외 개방, 외자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유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한 사실은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큼은 절대로 배제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북한호(號)'를 이 끌어온 김정일의 승인이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한의 산유국 꿈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대외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내부적으로 식량난의 해소 등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산유국 꿈에 대한 관심을 증폭되고 있다. **統**

<만화 북한기행>

1998

경협군도작상

협조

작

허어 그림

